

“호남권 초광역 협업”… AI 농업 생태계 구축한다

전남·광주·전북, 정부 공모 선정 426억 투입 스마트 솔루션 개발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한계 극복 “디지털 전환 속도… 농산업 혁신”

전남도가 광주시, 전북도 등과 초광역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권 3개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26억원(국비 284억원·지방비 142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초광역 협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광주시, 전북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

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과 함께 지능형 농업 실증 및 고도화, 지능형 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기계 스마트화(원격자율작업), 최적 생육 및 환경 관리(노지정밀농업), 지능형 농업 데이터 수집 및 제어(관제네트워크)를 통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농산업 경쟁력 고도화가 기대된다.

추진 사업은 △인공지능 자율작업 관

제체계 실증 △인공지능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이다.

나주에 조성 중인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이미 구축된 노지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노지 작물 최적화 생육 관련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실증(관수·시비, 생육진단·지도, 병해충 및 품질진단 판별 등) △인공지능 융합 농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개발된 인공지능 솔루션의 기

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사업은 전남의 주력산업인 농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통한 무인화, 지능화로 농가 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성장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농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선도하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농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 의료 통·번역활동가 양성 지원사업 추진

외국인주민 진료 통역서비스 내달 7일까지 지원자 모집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1일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

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5월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

이다. 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 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게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서구 통맥축제 개막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이 지난 19일 서구 양동통통시장 일대에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제2회 양동통맥축제’ 개막식을 하고 있다. 양동통맥축제는 5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1000원짜리와 통닭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도,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힘 쏟는다

의료취약지 17곳 ‘전국 최다’ 지역 의료환경 개선에 전력

전남도는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장 병원장들과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 의료환경 개선 정책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료취약지 98개소 가운데 전남이 17개소로 가장 많다. 전남도는 16개 시군에 22개소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주민 30% 이상이 권역응급의료센터(목포한국, 순천성가롤로)로 1시간 이내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목포중앙, 여천전남, 화순전

대)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전남의 경우 나주시와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17개 지역이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도한국병원장, 완도대성병원장, 구례병원장, 무안병원장, 신안대우병원장 등 10여개소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유지를 위해 의료 현장 실태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응급실 근무로 업무 범위가 한정된 공중보건직의사의 운영 지침 개정, 공공간호사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도민의 응급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40억6700만원) △삼·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1대)(45억6000만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설치 17개소(7억원) △삼지역 간호·복지 인력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 3개소(110억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사업 7명(3억 9400만원) △공공간호사 지원 20명(1억 6만원) △도서마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150개소(4억 6600만원) 등 취약지 응급의료 환경 개선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한다

신규 메신저 20명 위촉

전남도가 지난 18일-19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민원메신저 연찬회를 열고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며 제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찬회에선 신규 메신저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성원 결속과 화합을 다졌다.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 선암사와 여수 장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홍보활동도 펼쳤다. 전남도 민원메신저는 현재 293명이 제12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2425건의 도민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3000건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963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소현 민원메신저대표는 “민원메신저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뜻이 모여 이뤄진 작은 변화들을 볼 때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정을 대표하는 소통 채널로서 민원메신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22~29일 ‘걷기 챌린지 이벤트’

민관합동 비만예방관리행사도

광주시는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하루 만보걷기’ 챌린지와 민·관 합동 비만예방관리 행사를 잇따라 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지방을 줄이자’를 구호로 내건 이 행사는 바쁜 일상에서 가볍게 심을 통해 걷고, 마시고, 해로움을 줄이는 등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를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하루 최대 1만보를 걷고 ‘광주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카카오톡 채널 계정 추가후 1대1 대화로 만보 걷기 인증을 확인하면 된다. 총 3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당첨되면 선착순 300명에게 커피 모바일쿠폰을 증정하고, 건강한 비만예방관리 방법 등 건강소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9개 기관과 함께 비만예방관리 행사를 오는 27일 오전 서구 롯데아울렛 월드클럽 앞에서 진행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3억8100만원 투입 635대 보급

전남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3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635대를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기술포수사업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기존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와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일반가정은 제외됐으며, 지원 금액은 1가구당 정부 보조금(지방비 포함) 60만원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가구가 환경부와 협약을 한 보일러 제조·판매업체인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셀텍에너지시스, 알토인대우, 4개사의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제조업체가 추가로 10만~20만원을 지원해 일부자

부담 없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https://ecosq.or.kr>)이나 시·군 환경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도 자체 사업으로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보일러(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노후 보일러 교체 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로 교체하도록 1가구당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